

초등학교교육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 적용가능성 탐색*

함 희 주**

차 례

- I. 서론
- II.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 및 역사
 - 1. 음악의 문화적 정의
 - 2.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 및 역사
- III. 음악교육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적
- IV. 다문화 음악교육의 연구방법 및 적용범위
 - 1. 다문화 음악교육의 연구방법
 - 2. 다문화 음악교육의 범위
- V. 초등학교 음악교육과정에서의 적용가능성 탐색
 - 1.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상에서의 접근가능성
 - 2.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학습단원 및 내용은 어느 정도 구성되었는가?
 - 3. 초등 음악수업활동 안에서 다문화적 방법 및 한계
- VI. 결론

I. 서 론

오늘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을 향유할 수 있고 또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악문화

* 본 논문은 2003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한 것임

** 공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

인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문화의 공유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한 종족이나 지역적으로 특정한 음악이 그 종족이나 지역문화에 한정된다는 생각을 벗어나게 한다. 이러한 문화적 공유로 인하여 ‘세계음악’(world music)은 오늘날 모든 나라의 음악문화를 공유하는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복합적 형태로서 음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음악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음악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의 공유는 그 유통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파생시킴으로서 점차 더 다원적 형태로 되어가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전통적 사회 문화적 구조 안에서 이해하는 “다문화”의 개념적 범위를 확대시킨다.

다문화 음악교육의 전제가 되는 다른 나라의 음악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음악 및 음악문화에 대한 지식적 이해가 필요하다. 세계의 음악들은 구조적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에서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들에 의해서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음악의 청취에서 감정이입이 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각 음악이 종족적, 지역적 특성이 다른 문화권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20세기에는 세계의 음악계는 종족적으로 고유하고 다양한 음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류적인 문화적 활동으로 인하여 유럽을 근원지로 하는 서양음악이 하나의 통일된 양식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문화 사대주의를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등과 같이 미국의 정치적인 지배아래 놓여있던 제 3국가들은 자국의 음악문화보다는 서양음악 문화에 강한 영향으로 인하여 문화적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들의 음악문화는 20세기 에 다양하게 출현한 사회 문화 예술적 변화에 의해서 더 깊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음악이라는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그 규명이 단순하지 않은 다원론적 음악문화 경향에 의해서 독창성이거나 정체성을 들어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도의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른 문화권을 넘나들 수 있고 지구촌의 다양한 음악문화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다변화적 사회로 변화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와도 연관되는 점이다.

다문화 개념을 처음 사용한 미국에서 다문화 교육의 출현은 그들의 고유한 사회 구조적 문제였고, 다문화 음악교육의 성립 역시 이러한 사회구조적 배경에 의한 절대적인 원인을 가진다.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과제는 원래 특징의 문화적 규범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과 같은 문화권의 음악적 소재들을 그 동안 통일된 양식으로 초래된 서양음악적 소재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미국과는 다른 사회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가(?) 우선 우리 나라는 단일인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문화가 유입되면서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음악문화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 일본을 통한 유럽의 음악사상의 유입, 미국의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문화적 사대주의와 같은 상황을 낳게 한 이(異)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의 본래적 목적인 '문화적 정체성 바로 세우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적 정체성 세우기'로 행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인 입장에 놓여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음악계는 사용하는 기법이 서양적이던 전통적이든 간에 모두 우리의 정신이 반영된 음악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적 공존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화 정책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건 중에 하나로서 다문화적 접근은 이러한 문화 공존의 시대에서의 음악 교육적 과제를 풀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시대의 음악문화 개념에 대하여”, “세계음악 개념 안에서 우리 음악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또한 “그 의미 안에서 음악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이며, 음악교육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본 연구는 우리 교육에서 진정한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 및 목적에 관하여 살펴보고, 초등학교교육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으로서 개념, 목표, 적용방법에 관하여 제시하기로 한다.¹⁾ 연구방법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목적 중 가장 일차적 접근으로서 ‘소수집단의 문화 정체성 회복’이라는 미국과 같은 다문화적 사회에서의 적용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세계화 차원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으로서의 ‘다른 나라 음악문화 알기’에 목표를 맞추기로 한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화 정책아래서의 우리사회 문화적 목표일 뿐 아니라 초등교육과정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II.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 및 역사

1. 음악의 문화적 정의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동의 총체이며, 인간의 삶 속에서 파생하

1) 특히 초등 학교교육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음악성의 발달적 성질상 나이가 어릴수록 음악에 대한 감정이 입이 순수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안에는 언어, 인간행동, 종교의식, 예술 등이 포함된다. Alfred Kröber와 Clide Kluckhohn(1950)에 의하면 인류학적 측면에서 문화는 특정한 인종 집단이 고유한 성취를 구성하는 표상들에 의해서 습득되고 전해지는 것으로서, 사고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유형화된 방법에 의해서 존속된다고 한다.

음악 문화란 한 사회에서 인간에게 형성된 음악에 대한 지식, 가치, 태도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음악문화는 생태적으로 다양한 유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음악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에 관한 질문과도 관련된다. 어느 종족이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음악에 사용하는 도구나 재료들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활문화로부터 근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점은 음악문화 체계에서 볼 때 음악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음악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문화적 체계 안에서 성장한다. 일반적으로 문화 안에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이 다 반영되고 있듯이, 음악문화 안에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같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재료 및 도구들(악기)은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어느 종족의 음악에서나 다 반영되어진 문화의 객관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방법, 가치, 태도들을 비교해 보면 특정 종족만의 고유한 문화로서의 주관적 요소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음악예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보편적인 문화권에서는 순수한 예술적 가치로서의 미적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어느 문화권에서는 도덕, 종교, 관습적 요소들처럼 음악의 비 예술적 기능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음악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음악학적 접근은 각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기본요소, 개념적 이해 및 활동을 비교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렇듯 음악문화의 다양성은 다각도에서 비교 관찰될 수 있다. Robert Jourdain(1997)이 비교 제시한 것으로서 음악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리듬의 형태를 유럽(오스트리아)과 중앙 아프리카의 한 종족 무리들의 연주형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오스트리아 빈(Wien) 콘서트홀에서 성탄절 공연으로 <호두까기인형The Nutcracker>가 연주되고 있다. 청중들은 매우 우아하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다. 콘서트 홀은 정확한 음향적 기계 도구, 컴퓨터 시뮬레이션 음향분석 등 현대사회의 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같은 시각에 과학기술 시대 이전의 전통사회인 중앙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일몰 후 사람들이 모여있다. 누군가가 하나-둘-셋-넷-다섯-하나-둘-셋, 하나-둘-셋-하나-둘-셋-넷-다섯의 패턴으로 북을 두드린다. 사람들이 이에 맞춰 흥에 겨워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춤을 춘다.

빈의 연주회장에서는 서곡이 시작된다. 청중들은 조용히 박자에 따라 발장단을 맞춘다. 하나-둘, 하나-둘, 하나-둘.

아프리카 마을에서는 또 한사람이 다른 패턴으로 하나-둘-하나-둘-셋, 하나-둘-하나-둘-셋-하나

-둘... 북을 두드린다.

빈의 연주홀에서는 리드 플루트의 춤곡(Dance of the Reed Flutes)이 연주되고 사람들은 흥분이 고조되어 있다. 하나-둘, 하나-둘...

아프리카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북소리와 엇갈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패턴을 바꿔가며 노래를 부른다.

호두까기인형이 거의 끝나며 빈에서는 프렌치 호른들이 일제히 꽃들의 왈츠를 외쳐댄다: 하나-둘-셋, 하나-둘-셋

마을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한사람이 북을 들고 이 북새통에 끼여들어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하며 다른 이들과 겹치지만 또 다른 강박으로 출발한다. 축제는 밤늦도록 계속된다.”²⁾

Robert Jourdain은 이 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리듬 개념에 대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빈 콘서트는 콘서트 홀, 악기, 악보, 훈련, 리허설 등으로 구성된 최고도의 세련미를 자랑한다. 음악은 정교하게 작곡된 멜로디와 하모니, 악기편성 등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러나 리듬 전개에서는 냄비에 숟가락을 두들겨대는 아기의 수준에 버금갈 뿐이다. 반면, 과학기술적 세련미는 부족하고, 전문적인 연주자들도 아니지만 아프리카 마을의 주민들은 그들의 리듬을 최고도로 발전시킨 듯 보인다. 빈의 연주자들 중 누구도 그들의 리듬기교를 당해낼 수 없다”(같은 책, 204쪽). 즉, 이러한 예는 음악의 문화적 정의가 그 사회 및 관습적 활동과 관계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문화적 세련미가 음악적 요소에 대한 우열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한 예라고 이해된다.

2.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 및 역사

우리 음악과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게된 발생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개념은 한 사회 속에서 소수의 인종에 의한 문화가 다양한 형상으로 공존하며 나타나는 다문화적 현상 안에서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원래 우리와 같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보다는 여러 인종들이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는 다원적 구조를 이루는 미국과 같은 사회문화에 더 적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다문화 교육이 파생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소수인종집단들의 문화 정체성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용어는 꼭 미국과 같이 한 사회 내에 거주하는 소수인종과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 즉, 외세의 영향으로 이(異)문화 적 요인들이 유입되

2) 채현경·최재천 옮김(2002),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 202-202쪽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어 자국의 문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간문화적 현상을 보이는데, 바로 우리의 음악 문화적 현상과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 개념은 음악교육에서 사용하는 음악 및 다문화의 개념 이해에 대한 폭을 넓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다문화의 개념적 성격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로 미국에서 파생한 한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문화 정체성 유지 및 회복. 둘째로 한 사회 문화에 유입된 이문화적 요인에 의한 전통문화정체성 바로 세우기. 셋째로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 음악 이해이다.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용어가 파생하게된 역사적 동기를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한국에서의 사용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덕원(2000)에 의하면 미국 학교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의 근원은 19세기의 가톨릭 교회에서 전개한 교육운동에서라고 전한다. 그후 듀이는 미국 교육협회의 세미나에서 "문화적 복수주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당시 미국의 학교교육이 영국 문화 중심에서 벗어나 영국이외의 문화도 가르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하여 학교음악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의 시작은 1922년 미국 음악장학사 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고등학교의 흑인학생들이 재즈를 연주한 것이 강한 인상과 영향을 주게된 사건으로부터이다. 그후 1955년에는 종족음악학회가 발족되고, 1963년 예일 세미나에서 기존의 음악교육에서 서양음악위주로 교육하는데 대한 비판으로 비서양 음악, 재즈, 민속음악, 대중음악 등에 대한 음악교육의 수용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음악교육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제기한 것은 1967년 탕글우드 심포지엄에서 음악교육에서 "모든 시대, 모든 양식, 모든 형식, 모든 문화의 음악들이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한다. 우리세대의 음악들이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발표에서이다. 그후 미국 음악교육자 협회(MENC)는 저널 「Music Educators Journal」에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에 관한 주제를 특집으로 발표하여 이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즉,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다문화주의가 파생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 특유의 사회적 상황은 다문화주의 교육론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어서 음악교육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다문화 음악교육은 적용과정에서 다문화 교육론과 종족음악학적 자료 및 방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의미하는 개념을 '간문화적 교육'(Interkulturelle Erziehung)으로 사용한다. 독일에서 간문화적 음악교육으로 지칭하는 이유는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형성에 대한 유럽적 인식 안에서이고, 후자는 비 유럽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서, 전자는 개념인식의 사회

학적배경과 관계되고 후자는 교육학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유럽적 인식 안에서 다문화 개념은 사회적 배경에 의한 것은 독일과 미국의 사회 구조적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과 같이 여러 종류의 소수 인종들이 거주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유형의 유럽 특유의 다문화적 사회 형태를 이루고있다. 즉,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의 인종들로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유사한 전통을 가진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역사적으로 특정한 양식의 발달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만, 유럽음악문화의 발달에서 보면 지역적, 종교적 성향이 서로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발달해온 것으로서 이미 역사적으로 유럽 지역들 사이의 문화가 어울려져 상호 작용된 간문화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범 음악교육학적 배경으로서 개념 형성이 비유럽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문화 음악교육적 의미가 공포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1974년 Musik und Individuum(음악과 개성)이라는 주제로 München에서 개최된 제10회 독일 연방 학교음악제(Der Zehnten Bundesschulmusikwoche)를 들 수 있다. 이 학교음악제에서 Siegmund Helms에 의해서 독일 음악교육역사상 처음으로 비유럽권 음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학교교육과정에서 적용하는 “다른 나라 음악의 이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접근된 사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학술발표에서 Siegmund Helms는 “음악교육에서 비유럽 음악에 관하여”라는 주제가 처음으로 공적인 학술대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학교교육과정에서 비유럽 음악에 대한 학습 주제가 단지 민요배우기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독립적 음악”(Die autonome Musik)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의 수준 있는 교육으로서 1) 종족별로, 2) 음악의 구조적으로 또는 양식적으로 차이점에 대한 학습이 수업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74: 218-221).³⁾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독일 학교교육에서 비유럽 음악에 대한 수용이 논의되었고, 이후 독일학교교육에서 간문화 교육을 제도권에서 사용한 시기는 70년대에 학령전 교육과정에서이고, 80년대에는 일반적인 실용주의적 의미 안에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교육학에서 다문화 개념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다문화주의 교육과 비교할 때 의미적으로 차별된 그리고 불명확성을 갖고 있으며, 파생에서부터 모호하고, 전도 유망한 것으로 논의되었다(A. Ullrich, 1997). Peter Batelaan은 민주적 논의에서 파생된 사회의 다문화적 교육은 가문화적 교육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문화와 간문화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 Helms의 견해는 독일에서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간문화”로서 정의하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비유럽권의 음악을 유럽음악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음악으로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상호적 영향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간문화적” 형태를 이루도록 하는 의도로서 이해된다.

“다문화적 사회에서는 교육의 모든 형태가 간문화적일 수밖에 없다. 수업에서 간 문화적 교육은 단지 소수의 외국인종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국의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면 서로 상호 교류적 입장에서 동등한 교육가치로 인정된다”(1988: 12).

Batelaan의 견해는 독일 교육학에서 다문화를 의미하는 개념을 “다문화로서의 간문화적 교육”이라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독일 학교음악교육에서 간문화적 교육의 대상은 위에 설명한 독일과 유럽공동체 특유의 복합적 문화와는 구별된 문화로서 이들에게서 소외된 소위 집시문화(Migrantenkultur)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Almut Ullrich(1997)에 의하면 독일의 학교 음악수업에서 간문화적 교육에 필요한 접근방법은 독일내의 소수문화인 집시문화와 정체성구현(Identitätsbildung)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프로젝트의 내용과 자료에 의존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집시문화와 정체성 구현에 관한 논의는 당시 독일사회의 현실적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곧바로 당시 독일 음악학계에서 전개된 전 세계의 음악문화에 대한 음악학적 논의 속으로 편입되면서 음악교육 및 음악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⁵⁾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시한 것과 같이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은 사회적 구조 및 특성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위의 두 나라들과는 다른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우리의 음악교육에서는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우선 한국의 음악교육에서 이 개념을 적용은 위에 제시한 세 가지의 개념 중 “한 사회 문화에 유입된 이문화적 요인에 의한 전통문화정체성 바로 세우기”와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 음악 이해”에 중점을 둘 수 있다. 다문화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 첫 째 근거인 “한 사회 문화에 유입된 이문화적 요인에 의한 전통문화정체성 바로 세우기”는 우리의 음악문화에 이문화적 요소가 유입된 배경과 상관되며, 이문화의 유입 배경은 우리 음악문화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인 음악문화사적 측면과 사회문화사적 측면이 서로 복합적으로 어울려진 역사에서 읽을 수

4) 집시문화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소위 유럽의 주류적 국가들에 이주해 소속되어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지칭한다. 집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문화적 특성상 이 집단들이 대부분 한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집단의 구성원은 대부분 헝가리, 유고, 폴란드 등에서 당시 소련지배하의 체제적 압박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자국으로부터 벗어나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에 부분적으로 정착하여 살거나, 또는 그러한 국가 사이를 떠돌아다니며 사는 소수집단들이며, 집시문화란 바로 이들의 고유한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집시음악'이란 용어는 이들 문화권에서 즐겨하는 음악을 지칭하는 것이다.

5) 그러나 Almut Ullrich는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그는 집시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간문화적 음악교육은 실제적으로는 간문화적 음악교육이 독일의 학교 음악교육 일반에서 다양한 음악교육학적 논쟁들과 함께 주체 접근방법에 대한 학문적 명료성을 부여받지 못한 채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있다. 우리의 음악문화는 역사적으로 고대의 중국의 영향, 근대의 일본을 통한 유럽의 음악사상의 유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의 주도로 조직된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육내용 및 방법의 서구화 경향 등에 의해서 이(異)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성장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유입된 이문화적 요소들은 우리의 음악문화 안에서 양식화되어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고 있다.

특히 음악양식의 서구화를 낳게 한 원인이 되는 서양문화 유입에 의한 음악의 서구적 현상은 20세기의 시대사적 경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음악문화가 서구적으로 통일된 기법이 초래되어 양식화된 음악문화 현상을 낳게 한 근거이기도 하다. 그 결과로서 이러한 현상은 한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고유한 음악양식 및 문화에 영향을 미쳐 자국의 고유한 음악보다 서구적 음악문화가 더 보편화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서양음악의 양식화 및 문화의 서구화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으로서, 그 여파로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국의 고유한 음악 문화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권덕원(2000: 55)은 Schlesinger(1992)를 주장을 예로 들면서 문화의 정체성 상실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음악문화의 탈문화화 현상으로 우리의 고유한 음악에 대한 문화를 잃어버리게 된 것”과, “서양 문화의 조건 속에서 ‘기형적인 문화 생활’을 영위한 사실에 의해서 지난 세기동안 우리의 음악문화는 서구적 음악양식의 지배로 탈문화화 현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다문화 개념을 “한 사회 문화에 유입된 이문화적 요인에 의한 전통문화정체성 바로 세우기”로 두기는 바로 이와 유사한 사회구조를 가진 나라들에게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개념 적용의 다음 근거인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 음악 이해”는 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 정책과 관계한다. 이 내용에 관한 구체적 서술은 다음 장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적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III. 학교교육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적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적은 위에 제시한 개념적 의미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개념 설명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우리 학교교육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목적은 생태적으로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 및 음악문화사적 발달과 학교음악교육과정에

있어 우리 특유의 상황을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학교교육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은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문화정체성 바로 세우기와 다른 나라 음악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서 1990년 이후에 제기된 ‘국제화’ 또는 ‘세계화’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문화적 가치가 점차 다원화된다는 사실과 이것이 교육 안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이슈는 비단 음악교육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교과에서 다문화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에서 다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음악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다른 나라의 음악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음악문화에 대한 정체성 강화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촌에 대한 의식과 세계화 교육에 의한 다원적 음악교육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 음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꼭 세계화 목적이 아니더라도, 음악교육전반에서 이러한 목표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내재하는데 그것은 음악적 다원론이 우리 음악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음악문화 현상으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특수성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홍정수는

“한국의 국악과 양악은 많은 관련성이 있는데, 즉 많은 양악가의 작품이 국악적인 경우가 많고, 많은 국악작곡가의 작품이 서양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두 음악의 이런 상호관련성을 보는 것은 아직 한국의 음악학계에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런 시기는 오고야 만다. 그 때에는 단지 나란히 기술하는 방식은 오히려 의미가 없다고 생각 될 것이다. 세계가 좁아지면 ‘제외의 원칙’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엄청난 정보의 양 때문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유용한 것이나 바람직한 것들을 갖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오늘날은 한 국가 안에서 음악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중략). 예술의 영향관계는 다 많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그 영향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도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터키와 그리스의 음조식은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그 상관관계는 두 나라의 학자들에 의해 뒤집힌 상태로 기술되는 것을 본다. 한국·중국·일본은 음악 면에서 상호 연관관계가 분명한데도 서로의 음악들을 같이 묶어 다루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이 세 나라는 영향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국 음악의 성립역사를 다루면서 영향관계는 주변적으로 다룬다”(2001: 6).

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세계 속에서 음조직들의 다원성이 여러 나라와의 상호관련성안에 있기 때문에 음악의 조직은 다원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다문화 음악교육의 일반적 목적은 “한편으로 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과정에 의한 다른 음악문화 탐구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있다”. David Best(1986)는 다른 문화의 탐구는 그 자신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수집단과 주류의 양쪽 측면이 서로상대 문화에 관하여 비평적이며 동시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문화정체성 바로 세우기와 다른 나라 음악 이해”는 이러한 목적을 포괄하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제한적 주제로서 다문화 음악교육이 초등 음악교육에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음악의 인지 단계와 특히 음악 교육과정의 단계적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음악교육과정에서의 초기화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Robert Jourdain(1997)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일반적으로 성향에 관한 예로서 음감습득 과정에 대한 아동의 연령별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취학전 아동은 가락의 형태와 단순한 박자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화성의 관계는 이해하지 못한다. 조성의 변화는 감지할 수 있지만, 7-8세까지의 아동은 협화음과 불협화음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지만 단조와 장조는 구별하게 된다. 10세에는 두 개의 병행성 부를 따를 수 있게되고 종지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화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12세 정도에 가능하거나 개인에 따라 영원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재인용, 채현경·최재천 2002: 190).

특히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은 다른 음악에 대한 감정이입, 갈등, 연합 등에 대한 관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인지발달과정에서 볼 때 초등학교 단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Ullrich는 Selman(1984)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학령전 단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아동들은 아직 사회를 조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⁶⁾, 또한 교육심리학자 de la Motte-Haber(Ullrich, 재인용)는 낯선 음악청취에서 아동의 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들은 약8세까지는 아직 음악의 특정한 양식에 대하여 뚜렷하게 각인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이 시기까지의 아동은 조작적 사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음색을 받아들이는 것이 열려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문화 음악수업에서 다른 나라 문화권의 음악을 학습하는데 걸림이 없다는 것이다. 다문화적 음

6)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을 근거로 한 경험적 연구로서 Selman(1984)의 사회적 인지발달에 대한 단계모형 연구와 de la Motte-Haber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악교육이 연령이 낮은 단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브루노 네틀(Bruno Nettl)은

“미국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서양음악을 익힌다. 음악교육은 여기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 예술 음악을 다 배운 후에 다른 종족의 음악 학습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서양음악학습은 우선적인 활동이고, 다음 종족 음악에 대한 학습은 이차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각 종족 음악의 학습은 음악교육의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재인용, 권덕원 2000: 51).

라고 하며 오히려 초등학교이전의 음악교육과정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이 시작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IV. 다문화 음악교육의 연구방법 및 적용범위

1. 다문화 음악교육의 연구방법

문헌들에 의해 소개된 다문화 교육의 연구방법으로는 철학적 역사적 방법, 사회학적 인류학적 방법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이 방법들 중 실제 연구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두 범위가 다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학적 인류학적 방법이 통용된다. 다문화적 음악교육을 위한 사회적 방법은 사회학적 측면으로 “한 사회문화 속에서의 작품, 음악가(작곡가나 연주자)와 청중과의 상호의존성 안에서의 존재하는 특유의 문화를 이루는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인류학적 측면으로서 “특정 음악문화가 그 문화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에 어떻게 조건화하는가”에 대한 탐구 등을 들 수 있다.

연구 적용방법에 있어서 사회학적 인류학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태도에 의해서 관찰되어야 한다. 하나는 다른 음악문화에 대한 이해는 표현된 그 자체로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단지 외형적 표현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점이다.⁷⁾ 서구중심의 문화권에서 비서구 문화권의 예술을 원시적(비합리적)으로 보는 경향은 비

7) 예를 들어 서구중심의 문화권에서 비서구 문화권의 예술을 원시적(비합리적)으로 보는 경향은 비서구 음악의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음 서구중심 문화적 편견을 나타내는 예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비교음악학 연

서구 음악의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서구중심 문화적 태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그 문화의 외형적 측면만이 아니라 내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있다.⁸⁾ 진정한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법은 다른 문화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예술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할 때 비로소 감정이입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다.

Gibson(1984)의 주장대로 다문화 교육은 인간이 지각하고, 평가하고, 행동하기 위한 복합적 체계 속에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음악교육에서 다문화적 접근은 학생 개개인이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지각하고, 평가하고, 음악적으로 행동하는 복합적 태도에 의해서 음악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맥피(1988)는 “소수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인정하는 방법으로의 다문화적 인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각 문헌에 소개된 다문화 교육의 방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leeter와 Grant(1987, 박정애, 1993, 재인용)는 미국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접근으로서 다문화 교육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첫째, 문화적으로 다른 것을 교육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사회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문화의 주류에 소수의 다른 문화를 동화시키는 방법.

둘째, 인간관계에 의한 방법으로서 교육을 통하여 소수집단 학생들을 주류의 문화에 주입시켜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감수성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문화적 다원론을 조성하는 단일집단 학습방법.

넷째, 다문화적 사회 복구주의적 방법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Gonzo(1979)는 음악수업에서 문화통합을 목적하는 다문화적 방법으로 네 가지 - Assimilation, Pluralismus, Antirassismus, Globalismus -의 접근원리로 제시하였다(A. Ullrich 재인용).

첫째, Assimilation(동화작용적 접근)적 원리는 한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음

구를 들 수 있다. 20세기초 서구의 음악학자들이 실행한 서양음악(유럽 중심의 서양음악)과 비 서양음악들(서양음악을 제외한 다른 문화권들의 음악들로 아시아, 아프리카, 미 대륙의 원주민 등의 음악)과의 비교음악학 연구에서 얻어낸 결론에서 당시 서양 음악학자들은 서양음악의 화성(다성)적 체계에 의한 음조적을 가진 자신들의 음악과 그렇지 못한 비 서양음악들에 대한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서양 음악학자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합리적 구조로서 정리된 음악이라는 우월적 견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서양음악요소에 끼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방법의 불합리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이러한 점은 음악에서만 아니라 다른 예술교육의 다문화적 접근에서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다문화 미술교육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Ecker와 Sahasrabudhe(1987)는 “다른 문화의 미술을 그 특유의 표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예술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가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박정애, 1993. 참조).

악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둘째, Pluralismus(다원적 접근)는 한 나라 안에 공존하는 다양한 음악문화를 수업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Antirassism(반 인종적 접근)적 접근은 자국에 거주하는 소수인종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없애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넷째, Globalismus(세계화적 접근)는 자국의 문화권내에 존재하는 또는 세계의 모든 문화권의 음악문화를 가르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원리의 목적은 세계화적인 개념에서 모든 종족이 지구 공동체적 입장에서 같은 생태를 유지하며 살기 위함에 있다.

Gonzo의 네 가지 원리 중 우리 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Globalism과 Pluralism으로 이해된다. Assimilation과 Antirassism적 방법은 전형적인 미국의 사회와 같은 경우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의 사회 구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나라안에 공존하는 다양한 음악문화를 수업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서 Pluralism은 우리 교육에서 적용가능 하지만 방법 및 목적에서 우리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음악 교육적 입장에서 이 방법은 이문화적 영향과 관련한 우리 음악문화의 다원적 유형으로서 즉, 서구적 개념으로 현상되어진 우리시대의 음악들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 상호작용을 포괄할 수 있다. 음악 문화적 상호작용은 각 문화권의 음악을 비교하여 이해를 위한 유사성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호원리에 입각하여 이(異)문화적 음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Globalism은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데 가장 적절한 원리로서 들 수 있다. 이 원리는 자국의 문화권내에 존속하는 소수문화권의 음악 또는 세계의 모든 문화권의 음악문화를 가르치도록 하는 프로그램 꼭 미국과 같이 다원적 인종 국가가 아니더라도 세계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되는 다문화적 음악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접근 가능하다. 1990년대 이후로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세계화 개념은 우리 사회의 여러 요소들을 변화하게 하였고 교육과정 안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세계화적 원리의 적용 방법은 우리 나라 안에서 존재하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음악수업을 통해서 문화적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⁹⁾ 세계화적 접근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두 가지 입장에서 적용된다. 즉, 한편으로는 국가 민족주의적 움직임에 관한 문화 정체성 정립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한 지구촌 이해이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종족이 지구 공동체적 입장에서 같은 생태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9) 이러한 의도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그대로 반영되었고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지도내용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수업하도록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Peter Batelaan(1988: 12)은 다문화적 사회에서의 모든 교육은 다문화적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방법적으로 수업에서 간문화적 교육은 단지 소수의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에서 그들에게 자국의 문화 정체성 인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주류의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야 진정한 간문화적 교육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간문화적 음악교육의 방법은

첫째, 다른 문화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 만남으로부터 어떤 긍정적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유형화되어야 한다.

셋째, 소수 문화에 대한 의식이 좀더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족주의(또는 국가주의) 적인 것이 타파되어짐으로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으로서 새로운 것과 문화적 다양함에 대한 미래적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요구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간문화적 음악교육은 외형적으로 형태로서만이 아니라, 과제해결을 위한 보다 깊은 갈등적 교육과정으로 적용한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적 요소는 인식적이고, 수용적이고,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해결한다.

여섯째, 간문화적 수업은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적용해야한다. 즉, 간문화적 교육을 통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며, 호기심, 관찰 등에 의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한다.

2. 다문화 음악교육의 범위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적용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적용범위는 매우 넓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권덕원(2000: 51)은 “다문화 음악교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음악의 범위는 물론, 그 넓은 개념의 음악이 포괄하는 바의 사회, 그리고 다양한 사회들 속에 있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면서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의 음악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음악을 존중해야한다면 우리 음악교육에서도 제외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적 범위에 대한 음악 교육적 이해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1967년 탕글우드 심포지엄에서의 결의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심포지엄 결의문에는 “학교음악교육과정에 모든 시대, 모든 양식, 모든 형식, 모든 문화의 음악들이 포함되도록 하며, 우리세대의 음악들이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

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음악교육의 범위를 다른 문화권으로 확대 포괄하도록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며, 오늘날 다문화 음악교육에 속하는 세계음악의 이해에 대한 목적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우리 초등 교육과정상 전 세계의 모든 음악문화를 다 포함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문화적 음악교육 목표를 구체화하여 세계화 목적으로 우리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 음악과 비교해서 다른 문화가 가진 유사성과 차이점이 특징적인 음악문화를 대상으로 전개할 수 있겠다.

V. 초등학교 음악교육과정에서의 적용가능성 탐색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의 적용은 개념, 목적, 범위를 근거로 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세계화적 차원에서 우리 초등학교 음악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음악교육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교과서, 음악수업활동 안에서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요인 안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초등음악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방법 및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음악교육에서 다문화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예로든 외국의 적용 사례를 토대로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Globalism과 비교해서 우리 초등음악과교육과정 및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해보고, 음악수업활동에 대한 전반적 예는 Merkt가 제시한 수업프로그램 내용을 근거로 들어 우리 초등음악교육에서 다문화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위한 수업주제, 형태, 방법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1.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상에서의 접근가능성

음악교육에서 Globalism 즉, 세계화 교육을 위한 다문화적 내용은 우선 교육과정의 총론에 반영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지침 및 자료가 초등학교 음악과(科)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초등학교 수업에서 다문화적 음악수업 방법에 대한 학습사례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상에서 다문화적 접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된 예를 제 1차에서 제 6차까지와 제7차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파악 할 수 있다. 우선 1955년 제정 공포된 제1차로부터 1992년 개정 고시한 제6차까지의 우리 나라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에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용어의 개념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5-110).

제1차(1955. 8. 1)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음악교육의 목적을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국제인으로서 교양을 높이고...”(중략).

제2차(1963. 2. 15)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의 3번 항목에는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의 음악 중에서 경쾌하고 단순한 곡조를 많이 들려주어”...(중략) 라고 대략적인 의도가 제시되어있고, 또한 지도내용으로는 감상영역에서 “단순하고 좋은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의 음악 감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3차(1973. 2. 14)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의 (라) 항목에 “우리 나라 음악과 다른 여러 나라의 음악을 이해하고 조상들이 남긴 문화 유산을 계승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내용영역 중 가창활동에서 필수악곡으로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의 노래”로 명시되어 있다.

제6차(1992. 9. 30)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에는 “다양한 전통음악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 음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유의하도록 한다.”로 제시하고 있지만 학습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시기적으로 세계화적 이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1997. 12. 30에 개정 고시하여 현재 사용하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는 “음악과 교육은.....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더불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 유산을 비교하여 그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로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2001: 243). 또한 ‘이해’ 및 ‘활동’으로 구성하는 내용체계 안에서도 학습지도 이해영역의 ‘형식’항목과 가창·기악·창작·감상으로 구성하는 활동영역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노래부르기, 연주하기, 창작하기, 감상하기로서 각 활동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세계화 또는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과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음악

문화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우리 음악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안문제들이 교육과정 개정연구에서 분명하고 강도 높게 반영되어야 한다. 위장의 범위부분에서 예시한 권덕원(2000: 51)의 주장처럼 가능한 세계음악을 포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장르들을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습주제에 대한 예시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다문화적 학습주제들이 윤곽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으로만 제공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친근해질 수 있는 흥미 있는 주제들로서 매우 다양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반영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주제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재료로서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김문환(1999: 105-112)은 “문화교육의 성공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취하는 행동들, 그리고 후에는 성인시민으로서 가족, 공동생활에서 취하는 행동들에 대한 실험이 학습교과 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다문화적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교육과정 개정은 실제의 경험과 학습주제들이 교과과정에서 결합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만 다원주의 교육이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2.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학습단원 및 내용은 어느 정도 구성되었는가?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음악 학습 자료는 국악 및 서양음악 장르, 그리고 제3국(아프리카, 아시아, 북·남미 원주민 등)등의 문화권에 속하는 다양한 나라들의 예술음악과 민속음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하는 우리의 초등 음악교과서는 3학년에서 6학년의 학년별 음악교과서로 구성한다. 1, 2학년은 통합교과로서 “즐거운 생활”이라는 주제아래 음악·미술·체육교과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교과서 3-6학년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초등 3-6학년 음악교과서 분석결과 다문화 학습주제로 구성된 음악장르들은 민속음악과 예술음악으로 제시되어 있고, 학습활동영역은 주로 가창·감상·기악에서 제시되고 있다. 3-6학년의 학년별 음악교과서에서 다문화적 학습주제로 제시된 다른 나라 문화권의 음악장르, 학습주제, 학습활동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학년 음악>

장르	지역명	단원 및 제목	학습주제	학습활동영역
예술음악 (무곡)	동유럽	헝가리 춤곡	브람스 작곡으로 헝가리 민속음악을 소재로 한 무곡으로서 헝가리 민속문화 탐색	감상
예술음악	서유럽	미뉴에트	서양 바로크시대 음악문화에 대한 탐색과 형식개념을 이해한다	감상
예술음악 (발레음악)	러시아	갈대피리 춤과 아라비아 춤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삽입곡으로 두 음악을 비교하며 서로 대비된 표현의 특성을 탐색 및 발레음악의 문화적 요소 탐색	감상

<4학년 음악>

장르	지역명	단원 및 제목	학습주제	학습활동 영역
춤곡	서유럽	음악과 춤 (춘앵전과 춤)	사회 문화적 배경이 음악과 춤의 특징에 미친 영향을 탐색.	감상활동
기악 예술음악	서양 (유럽권)	여러 가지 현악기	동·서양 현악기에 대한 이름, 연주방법, 표현방법, 음색을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 탐색	기악 및 감상

<5학년>

장르	지역명	단원 및 제목	학습주제	학습활동영역
민요	러시아	별빛 눈망울	러시아 민요의 특징이 소박하고, 주제가 실생활 적이라는 것(문화적 요소) 및 조성이 단음계를 사용한 것 등을 실제 음악을 통해 탐색	가창
예술음악	서유럽	바다	인상주의 음악을 통해 그 시대의 예술기법 및 특성을 탐구	감상

<6학년>

장르	지역명	단원 및 제목	학습주제	학습활동영역
민요	중국	여러 나라의 음악 (수건 돌려라)	각 나라 민요를 비교하며 자연 환경, 생활양식 등의 문화적 특성이 음악(민요)에 미친 영향 등을 비교 탐색한다.	가창
민요	가나	여러 나라의 음악 (체체 쿨레이)	=	=
민요	러시아	여러 나라의 음악 (까로 부쉬까)	=	=
민요	푸에르토리코	여러 나라의 음악 (체키모레나)	=	=
예술음악 (극음악)	유럽 및 한국	극음악 (오페라, 뮤지컬, 판소리, 창극)	서양과 한국의 극음악 장르를 비교하고, 극 안에 표현된 음악적 요소 및 주제 등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탐색한다.	감상 및 창작
기능음악 (의식음악)	한국 및 서양	취타	한국과 서양의 기능음악을 비교하며, 사회 관습적 차이에 의한 음악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탐색한다.	감상

이상과 같이 초등 음악교과서 3학년에서 6학년에 제시되고 있는 단원 중 다문화적 학습주제는 지역적으로 유럽, 러시아, 중국, 중미문화권으로, 음악장르 별로는 민요들과 예술음악에서 무용곡이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단원의 예시가 단순하고 교과서 상의 학습자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좀더 폭넓고 다양한 나라들 및 음악장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3. 초등 음악수업활동 안에서 다문화적 방법 및 한계

현재 우리 나라 초등 음악수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문화적 학습 지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사례제시는 매우 미흡하다. 때문에 본 장에서는 Merkt, Ullrich의 견해를 근거로 음악수업에서의 적용방법을 포괄적으로 구성하였다.¹⁰⁾

Merkt(1993)는 간 문화적 음악수업 프로그램을 7가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질적 접근으로서, 이 방법은 세계의 각 문화권의 음악이론분야 즉,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음악적 재료, 음악개념(음높이, 음길이, 음색, 강약)에 대한 정렬과 각 문화권의 음악에 대한 사고, 상상, 표상 등을 바탕으로 수준 있는 논의를 기초로 하여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 또는 통합적 요소들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2) 음악 활동적 접근으로서, 통합적 음악하기를 선행한다. 모든 아동들이 같이 각 문화권의 음악을 수동적으로 듣기보다는 보다 능동적 접근으로서 음악하기로 접근한다.
- 3) 사회 구조적 접근으로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육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소수 집단의 외국아동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의 아동들이 외국아동들의 문화를 느끼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뉘어진 문화적 정체성이 세대교체 후 문화적으로 통합된 다음세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개념에 대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 4) 열린 교육적 접근으로서, 이 방법의 목적은 교육기회 균등을 제공하는데 있다. 즉, 다른 문화권의 음악과 언어를 서로 교류하는 형태로서 문화현장중심 학습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음악수업에서 각 문화권의 언어로 노래하도록 함으로서 직접적으로 다른 문화의 음악을 음미하고, 모방하도록 한다.

또한 Ullrich는 간 문화적 음악수업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는 수업내용으로 각 문화권의 음악문화를 대상으로 공통적 요소를 동기로 하여 그 유사성, 신뢰성,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문제로서 다른 문화권의 음악에 대한 억측된 문화적 차이를 핵심 문제로 다루는 것이다.

다문화 음악수업은 학습자가 다른 문화권의 음악에 대한 감정이입, 갈등, 연합이 관철되어야만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감정이입을 위해서는 첫째로 다른 문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둘째로 그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셋째로 각 문화권사이의 음악에 대한 유사성과

10) 이외에도 Siegmund Helms가 예시한 학습지도방법을 들 수 있는데, 내용구성이 중학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1974: 222-227 참조)

차이점 비교를 통하여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및 자국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 이러한 존중과 비판적 시각이 동반되어야만 연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사회적 조망에 대한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업과정에서 어떻게 훈련되는가에 따라서 인식 및 태도 이루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업 및 현장학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

1) 수업주제

다문화적 음악수업을 위한 주제는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학습기간은 주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주제는 장기적 차시로 적용되도록 하며, 각 차시별 수업 주제가 연속적으로 논의되도록 계획한다. 다문화 음악수업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주제 안에서 학년별로 전개할 수 있다.

가) 사회 문화적 접근

- 한 문화권 안에서 음악적 행동을 위한 규범들은 무엇인가?
- 작품이 그 문화권의 객관적 의향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 한 음악가의 주관적 개념이 그 문화권의 객관적 규범들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나) 음악 사회학적 접근

- 사회문화가 음악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음악의 문화적 가치, 특성, 태도, 역할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 문화 속에서 음악가의 역할 및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 각 문화권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교육되는가?

다) 음악 문화적 접근

- 음악에 생활문화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음악에 반영된 전통 문화적 특성은 무엇인가?
- 각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의 유사성과 차이성은 어떠한가?
- 각 문화권의 민속춤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11) Selman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근거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사회적 인지발달에 대한 단계모형을 제시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Die Entwicklung des sozialen Verstehens』, Frankfurt/M. 1984. 참조

- 특정 문화권에서 음악적 놀이들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라) 음악 미적 접근

- 음악작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
- 각 문화권에서의 음악개념 및 사용하는 음악적 재료들은 무엇인가?

2) 수업의 형태

수업방법은 교실수업 및 가능한 현장체험 중심의 실제수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등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 수업에서 각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음악적 자료, 악보, 악기 등 자료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물 및 멀티미디어자료를 활용한다. 구체적 접근방법으로는 우선 수업을 포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다른 문화의 음악을 가능한 실제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수업방법

수업의 전반적 형태는 통합적 형태로 전개하며, 학습주제 및 목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수업활동은 Merkt(1993)의 간 문화적 음악수업 프로그램예시와 같이 음악 활동적 접근으로서, 통합적 음악하기를 중심으로 한다. 즉, 모든 아동들이 같이 각 문화권의 음악을 수동적으로 듣기보다는 보다 능동적 접근으로서 음악하기로 접근한다. 또한 내용구성에서 각 문화권의 음악이론분야 즉,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음악적 재료, 음악개념(음높이, 음길이, 음색, 강약)에 대한 정렬과 각 문화권의 음악에 대한 사고, 상상, 표상 등을 바탕으로 수준 있는 논의를 기초로 하여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 또는 통합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VI. 결 론

본 논문은 초등학교교육에서 다문화 음악교육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념에 대한 적용,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초등학교교육에서 다문화 또는 간문화적 음악교육을 적용하려면 목적, 개념적 근거, 방법, 적용범위 등에 있어서 우리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개념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ssimilation, Pluralismus, Antirassismus, Globalismus의 네

가지 원칙을 우리 학교교육에서 적용할 경우에는 그 목적과 원칙에서 이 개념이 유래된 미국사회와 상이한 조건을 가진 우리 나라의 특이한 사회 문화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용해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우리 초등학교교육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적은 Globalismus에 둘 수밖에 없다고 보고 구체적 접근주제를 “세계화적 목적으로서의 우리음악 문화 정체성 구현 및 다른 나라의 음악문화 알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음악교육이 실행되려면 교육과정, 교과서, 현장수업에서 적절한 학습자료 및 지도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학교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이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고 있으나, 음악교과서에 소개된 다른 나라의 음악 알기에 관한 단원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적 음악교육은 이러한 점이 충분하게 보완되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는 결론적으로 초등 음악교육에서 다문화적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안하면서 본 연구를 마감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음악교육 방향을 제공하기 위한 논제적 접근과제로서 “우리문화 정체성 바로 세우기 및 다른 나라 음악문화 이해”에 걸 맞는 음악 교육적 과제는 우리시대에 나타난 음악 문화적 현안으로서 “음악예술의 전통적 가치와 의미”, “오늘날의 새로운 시대적 음악양식”, “세계음악으로서의 우리 음악의 위상과 정체성” 그리고 “비유럽 음악 이해 및 체험”에 관한 주제 등을 논의하고 그 방향을 음악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학교교육에서 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세부적 접근과제로는 (1) 서양문화 뿐만 아니라 비서양 음악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대한 다양성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의 특성을 인식하여 음악적으로 사회화, 문화화가 되도록 조직한다. (2) 역사적으로 우리 음악문화 속에 유입되어있는 이(異)문화적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양식 및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교육하는데 있다. (3) 이문화적 영향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 음악계에서 발표되는 많은 다원적 음악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기법, 양식, 재료들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한다.

둘째, 초등학교교육에서 다문화 음악수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 접근으로서 (1)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다른 문화권의 음악이 다양하게 제시되도록 한다. (2)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교육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실제적 접근을 위한 자료로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대신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문화권의 실물자료, 전통악기 등. (3) 수준 있고 다양한 음악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현장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끝으로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모든 논의는 학교교육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교육 차원으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중·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기준(1955-1997). 교육인적 자원부 발행.
- 권덕원(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과 국악교육. 음악과 문화 제2호, 세계음악학회.
- 김문환(1999), 문화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강순희(2001), 다방향적 확산과 문화적 정체성. 음악과 민족 제21호, 민족음악학회.
- 박정애(1993), 다문화 미술교육을 위한 사회학과 인류학적 방법. 미술교육 제3호, 한국미술교육학회.
- _____(2000), 포스트 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시공사
- 주대창(2000), 한국에서 종족음악학의 진로. 음악과 문화 제2호, 세계음악학회.
- 홍정수(2001), 세계사 속의 한국음악. 음악과 민족 제21호, 민족음악학회.
- Almut Ullrich(1997), Musikunterricht in ein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in: Handbuch des Musikunterrichts(Helms · Schneider · Weber), Gustav Bosse Verlag, Kassel
- Gonzo, C.(1979), Multicultural issues in music education. in: Music Educators Journal 2.
- Helms, Siegmund(1974), Stilmerkmale Japanischer Musik. in: "Musik und Individuum". Vorträge der zehnten Bundesschulmusikwoche München, B. Schott's Söhne, Mainz, Printed in Germany.
- Jourdain Robert(1997), Music, Brain, and Ecstasy. (채현경·최재천 옮김),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 2002, 궁리출판
- Merkt, I.(1993), Interkulturelle Musikerziehung. in: Musik und Bildung(22)
- Schlesinger, A. M., Jr.(1992), The disuniting of America. New York: W · W · Norton & Company.
- Selman, R. L.(1984), Die Entwicklung des sozialen Verstehens, Frankfurt/M.
- Sleeter, Ch. E., Grant, C. A.,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 Havard Education Review, Vol. 57, NO. 4.
- Young Pai, Cultural Foundations of Education. Merrill, an imprint of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ABSTRACT

The Possibility of th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Hee-Ju Ham

This research has an intention of looking for the possibility of th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esearch, We saw the application object, extent, and process about the multi-culture. As the basis, method, and extent comparing with our own social background to apply a multi cultural music in the education of our elementary school.

That is, in case of applying these four principle used in multi-cultural concept; Assimilation, pluralismus, Antirassismus, Globalism in our school education, we should apply our own sociocultural position that has too different condition with U.S.A; the matrix of the concept.

So, a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 think we should focus the definite approaching subject at "Representing our music identity as the international aim and understanding other nation's musical culture" because we cannot help putting Globalismus as the multi-cultural object in our elementary school.

Things such as Curriculum, text, and proper instructive materials or instruction method in field lesson should be given to implement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As the research's result, there are some guide about it in the music curriculum, but there are less units about the knowledge of other countries' music. Th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with the object of globalism will be possible when these problems complement enough. I'll finish this research suggesting the following discussion for the multi-cultural elementary musical education in conclusion.

First, the musical education subject like "setting up our cultural identity or understanding other culture of music" is discussing about that kinds of subject "Traditional value and

meaning of music", "Today's music style in a new age", "The position and the identity of our music in all the world" and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of the non-Europe music", and involving that direction in the music curriculum.

To operate these discussion in the school education, the detailed approaching subjects are 1)Understanding a variety of musical culture including non-Europe music as well as Europe music, comparing variety with difference about lots of different genre of music in the world, cognizing the individuality of other culture and our culture, organizing it to be socialization and civilization on music. 2)As looking for the other culture factors flowed in our music culture in history, educating cultural identity or our music style. 3)Relation to the other culture effect, grasping the inter-relation of techniques, style, materials used in many plural music that expressed in our music association there day.

Second, as the real approach to be implemented efficiently to the multi-cultural music lesson, 1)it should present many-sided multi-cultural music in the elementary music text. 2)It should present a definite data that needs in the instruction-learning motion. especially as the materials for the real approach to be implemented efficiently multi-culture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uch as other culture's natural object, traditional instrument etc, be used in lesson instead of field activities 3)To offer lots of high-level music lesson and to do field activities directly to the teachers, the abroad study training services is real urgent.

Finally, all kind of discussion about multi-cultural musical education must be widened the extent for the social education as well as school education.

주제어 : 다문화적 음악교육, 초등학교 음악 교수-학습